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동북일보 5면

장동우 부의장 화계중학교 초청강연

진로선택 및 체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삶에
대하여 특강

강북구의회 장동우 부의장은 지난 22일 오전 9시50분 화계중학교(교장 김종현)의 초청으로 1학년 1반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및 체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자유학기 교육활동 다양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진로특강 1일 명예교사’로 초청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강의에 앞서 부의장은 “내가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버리고 싶은 것, 하고 싫은 것”을 조사하는 예쁜 설문지를 손수 만들어와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 화계중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장동우 부의장.

이 기회에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은 부의장인 본인에게 주어 말끔히 버려 정리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진로선택 및 체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삶』에 대한 특강에 나

선 장동우 부의장은 인터넷에서 발췌한 진로교육의 필요성, 진로선택을 위한 체험의 중요성, 내게 맞는 직업의 선택기준 등에 대한 강의 보조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후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이어 나갔다.

특히 지난해 인근 노원구나 성북구에는 있으나, 강북구에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의 강북구내 설치 필요성 강력히 제기하여, 드디어 금년 2월 4일 강북청소년수련관내에 개관한 『강북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또한, 장동우 부의장은 진로교육은 단순히 한 두 시간의 특강만이 아닌 평생에 걸쳐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고, 나아가 졸업 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위한 교육임을 강조하였다.

오늘 강의 받은 학생 모두는 자기가 희망하고 성취하고 하는 꿈을 하나 가지고 노력하여 꼭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북부신문 8면

장동우 부의장 화계중 진로특강 1일 명예교사

‘진로선택 및 체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삶’ 주제로 강연
학생들 성취하고픈 꿈 노력해 이룰 수 있길 당부

강북구의회 장동우 부의장은 지난 22일 오전 9시 50분 화계중학교(교장 김종현) 초청으로 1학년 1반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및 체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자유학기 교육활동 다양화의 일환으로 실시된 ‘진로특강 1일 명예교사’로 마련됐다.

강의에 앞서 장 부의장은 “내가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버리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만들어와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 부의장은 이번 기회에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주며 말끔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진로선택 및 체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삶’에 대한 특강에 나선 장동우 부의장은 인터넷에서 발췌한 진로교육의 필요성, 진로선택을 위한 체험의 중요성, 내게 맞는 직업의 선택기준 등에 대한 강의 보조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후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이어 나갔다.

특히 지난해 인근 노원구나 성북구에는 있지만 강북구에는 없었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강북구 내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해, 올해 2월 4일 강북청소년수련관내에 개관하게 된 ‘강북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 장동우 부의장은 진로교육은 단순히 한두 시간의 특강만이 아닌 평생에 걸쳐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장동우 부의장이 화계중학교에서 진로특강 1일 명예교사로 강연을 펼쳤다.

야 하는 교육이라며, 나아가 졸업 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위한 교육임을 강조했다.

특히 강의 받은 학생 모두가 자기가 희망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꿈을 하나씩 가지고 노력해 꼭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강북구의회
장동우 부의장

진로특강 1일 명예교사 활동

강북구의회 장동우 부의장은 지난 22일 오전 9시50분 화계중학교(교장 김종현) 초청으로 1학년 1반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및 체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자유학기 교육활동 다양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진로특강 1일 명예교사"로 초청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강의에 앞서 부의장은 "내가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버리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장 부의장은 "이 기회에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은 말끔히 버려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본격적인 진로선택 및 체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삶에 대한 특강에 나선 장동우 부의장은

은 인터넷에서 발췌한 진로교육의 필요성, 진로선택을 위한 체험의 중요성, 내게 맞는 직업의 선택기준 등에 대한 강의 보조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후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이어 나갔다.

특히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의 강북구내 설치 필요성 강력히 제기하여, 금년 2월 4일 강북청소년수련관내에 개관한 강북구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장동우 부의장은 진로교육은 단순히 한두시간의 특강이 아닌 평생에 걸쳐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고, 나이가 젊을 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위한 교육임을 강조하고 학생 모두가 자신이 희망하고 성취할 수 있는 꿈을 정하고 노력하여 꼭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장동우 부의장 화계중학교 초청강연 펼쳐

'진로선택 및 체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삶' 주제로 특강 실시

장동우 강북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22일 오전 9시50분 화계중학교(교장 김종현) 초청으로 1학년1반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및 체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자유학기 교육활동 다양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진로특강'시간에 맞춰 '1일 명예교사'로 초청되어 활동하게 됐다.

강의에 앞서 장 부의장은 "내가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버리고 싶은 것, 하고 싫은 것"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손수 만들어와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설문지에 대해선 "이번 기회에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 주어 말끔히 버려 정리하길 바란다"라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어서 특강에 나선 장동우 부의장은 진로교육의 필요성, 진로선택을 위한 체험의

중요성, 내게 맞는 직업의 선택기준 등에 대한 강의 보조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후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이어 나갔다. 특히 인근 노원구나 성북구에는 있으나 강북구에는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던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의 강북구내 설치 필요성 지난해 강력히 제기하여, 올 2월4일 강북청소년수련관내에 '강북구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개관하게 했다고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했다.

또한, 장동우 부의장은 "진로교육은 단순히 한두시간의 특강만이 아닌 평생에 걸쳐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라며, "나이가 젊을 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장 부의장은 "오늘 강의 받은 학생 모두는 자기가 희망하고 성취하고 하는 꿈을 하나씩 갖고 노력하여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화계중학교 1학년1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동우 부의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장동우 부의장, 화계중학교 초청강연!

“진로선택 및 체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삶”



강북구의회 장동우 부의장은 지난 22일 오전 화계중학교(교장 김종현) 초청으로 1학년 1반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및 체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자유학기 교육활동 다양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진로특강 1일 명예교사'로 초청돼 '내가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조사하는 예쁜 설문지를 손수 만들어와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장동우 부의장은 "이번 기회에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은 부의장인 본인에게 쥐서 말끔히 버려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로선택 및 체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삶'에 대한 특강에 나선 장동우 부의장은 인터넷에서 발췌한 진로교육의 필요성, 진로선택을 위한 체험의 중요성, 내게 맞는 직업의 선택기준 등에 대한 강의 보조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후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이어 나갔다.

특히, 지난해 인근 노원구나 성북구에는 있으나, 강북구에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의 강북구내 설치 필요성 강력히 제기해 드디어

금년 2월 4일 강북청소년수련관 내에 개관한 '강북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한, 장동우 부의장은 진로교육은 단순히 한두시간의 특강만이 아닌 평생에 걸쳐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고, 나아가 졸업 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수있도록 이끌어 주기위한 교육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장 부의장은 "오늘 강의 받은 학생 모두는 자기가 희망하고 성취하고 하는 꿈을 하나 가지고 노력해 꼭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강연을 마쳤다. 유영일 기자